

무주에서의 유쾌한 영화 소풍 성료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18개국 86편 영화 상영·공연·이벤트 등 다채... 3만여명 방문 성황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8일 3일간의 영화 소풍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했다.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총 3일간 18개국 86편의 영화들이 무주 실내상영관과 야외 상영장에서 다양하게 상영되었다. 먼저 개막작 무성영화 〈바람〉 라이브 with 뮤직+더빙은 정재은 영화감독 총 연출, 4인조 컨템포러리 음악밴드 ‘반도’의 아름다운 연주가 초여름 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올해 〈넥스트 액터〉로 선정된 최현욱 배우의 야외토크, 관객과의 대화 (GV), 사인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인파가 집중되어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감독 특집 프로그램 〈디렉터즈 포커스 엄태화〉와 〈넥스트 시네아스트 박세영〉 프로그램에는 많은 관객이 참석했으며, 알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현장 관객들의 높은 만족감을 입증하듯 호평 세레가 쏟아지며 앞으로의 기대를 확연히 했다. 뿐만 아니라 〈키즈 스테이지〉는 가족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가족 관객들을 위한 영화 상영과 공연, 여러 이벤트들이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유다빈밴드, 에피톤 프로젝트, 소수빈, 작재, 오월오일, 이승운이 함께 한 음악 공연, 야외토크, 산골책방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주드나무운동장의 부대행사는 물론, 등나무스테이지에서의 즐길 거리를 주관부터 확장시킨 알찬 프로그램 구성은 관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했다.

무주드나무운동장 1일 입장권 사전예매율 91.0%, 실내 상영 사전예매율 83.21%를 기록하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8일 3일간의 영화 소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은 시상식 모습

며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3일간 16,597명의 유료 관객 포함 총 3만여 명 관객들이 무주산골영화제를 찾아, 영화와 자연과 음악 그리고 관객들이 어우러지는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낭만 영화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장’ 섹션에는 총 8편의 영화들이 상영되었으며, 총 5개 부문의 시상으로 이뤄졌다.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황인홍 조직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자연과 어우러져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휴양낭만영화제 제13회 무주산골영

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관객과 영화인 여러분, 그리고 무주군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심사위원 및 시상자와 관객들이 자리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상식에서는 감미자 감독의 〈봄밤〉이 뉴비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어 〈3학년 2학기〉의 이란희 감독이 감독상과 무주관객상 2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음으로 CAPRA 크리에이티브상에는 〈에스퍼의 빛〉의 정재훈 감독과 공동 각본가들이 수상했으며, 영화평론가상에도 정재훈 감독의 〈에스퍼의 빛〉이 연이은 수상을 이어갔다.

/무주=전문선 기자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개최

남원시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작... 14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가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작인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을 오는 14일 오후 2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 콘텐츠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우수한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연극 동백당은 1947년 군산의 작은 빵집 ‘동백당’을 배경으로, 해방 직후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연대를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다.

군산이라는 도시와 ‘빵’이라는 소재를 통해 전통과 근대, 개인과 공동체, 실패와 성공이라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따뜻한 시선



으로 풀어냈으며, 제4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수상자 황세원, 2022년 박정자 연기상 수상자 박윤정을 포함한 실력과 배우들이 출연, 작품성과 흡입력을 모두 갖춘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가능하며, 공연 티켓은 전석 1만 원으로 남원 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예매 등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063-620-6153)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두문마을 낙화놀이 축제 성료

5000여명 관람객 운집... 전통·흥겨움 어우러진 축제의 장

무주군 안성면 금령리 두문마을에서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열린 ‘두문마을 낙화놀이 축제’가 양일간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낙화놀이 보존회 박일원 회장과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역 전통문화 계승의 의의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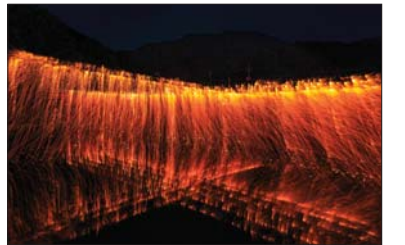
행사는 금령리 두문마을 일원에서 펼쳐졌으며, 사회자 정숙 진행으로 서도소리전통예술원과 동동악단단을 비롯해 가수 더수타나타, 민성아 등 다수의 예술인이 참여해 축제의 흥을 돋웠다.

부대행사로는 ‘소원 낙화물 만들기’와 ‘키링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마을의 평안과 액운 방지를 기원하는 대동제도 함께 진행되어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축제장에서는 지역 특산 먹거리도 큰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전과 막걸리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돼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성한 축제로 평가받았다.

두문마을 낙화놀이는 조선시대 흥감제 서당에서 삼급 학동들이 강의를 마친 뒤, 서당 앞 소나무에 새겨줄을 걸고 낙화물 100~200개를 달아 불을 붙이며 즐기던 전통놀이이다.

삼잔달, 초파일, 단오 등 사시절에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어우러졌던 민속행사로, 한지와 축, 뽕나무 숯가루, 소금 등 친환경 재료로 만



든 낙화봉에 불을 붙이면 불빛과 연기, 향기, 물빛 등이 어우러진 장관이 연출된다.

이 전통놀이는 2006년, 1930년생 기는 전수자 박찬훈 옹의 손에 의해 복원돼 올해로 19회를 맞았으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민들의 오랜 바람 끝에 낙화놀이 전수관도 설립돼 전통문화의 보존과 교육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두문마을 낙화놀이는 방탄소년단(BTS)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으로 소개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나, 영상 소개 시에 두문마을 낙화놀이가 아닌 ‘함안 낙화놀이’로 잘못 소개되는 바람에 혼선이 있었다.

실제 촬영은 두문마을 낙화놀이를 소재로 새만금에서 촬영되었음에도 함안 낙화놀이로 잘못 소개되는 바람에 함안 낙화놀이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지역 고유 전통문화의 정확한 소개와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만호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예술×기술 융합 콘텐츠 공모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는 7월 까지 △미디어아트 △예술×기술 융합 프로젝트 등 두 개 분야에서 총 17건의 콘텐츠(작품 및 프로젝트 팀)를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향후 3년간 총 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먼저, ‘미디어아트’ 분야는 팔복예술공장에 설치된 가로 4m, 세로 6m의 사이니지(전광판)를 통해 상영할 작품을 공모한다. 선정된 10개 작품은 8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상영된다.

이어 ‘예술×기술 융합 프로젝트’ 분야는 전통예술과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AR/VR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창작 연구를 지원한다. 선정 팀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개발비가 제공되며, 결과물은 오는 9~10월 개최 예정인 ‘미래문화축제 팔복(가칭)’에서 대중에게 선보인다. 우수 프로젝트는 심사를 거쳐 차년도 기술 개발 연계 지원 기회도 주어진다.

공모 일정은 미디어아트 분야는 6월 16일까지, 예술×기술 융합 프로젝트 분야는 7월 14일까지다. /창은성 기자

중소출판사 성장도약 지원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10일 ‘2025년 중소출판사 성장도약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성장/도약 단계별로 도서 제작, 출판사 경영, 출판마케팅 지원한다.

‘2025년 중소출판사 성장도약 지원’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 출판사를 대상으로 출판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실한 출판기업 육성과 양질의 도서 생산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창업 7년을 기준으로 출판사를 ‘성장’과 ‘도약’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우수한 기획안과 원고에 대한 도서 제작지원, △출판 분야별 컨설팅과 출판사 경영에 필요한 전자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등 경영지원, △창업 초기 출판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간지원, △출판사 장기 고정 독자층 형성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제작지원 사업은 원고 기획부터 도서 제작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하여 공모유형을 ‘기획안’과 ‘원고’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기획안 유형은 양질의 기획안을 구체화 및 고도화할 수 있도록 창작 초기 단계를 지원하고, 원고 유형은 양질의 출판콘텐츠를 제작·유통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창작 완성 단계를 지원한다.

특히, 2025년 기획안 유형 선정작을 대상으로 2026년 원고 유형 심사시 가점을 부여해 출판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성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